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더운 여름은 쇠쌀도 달군다. 땀방에서 마당 가득한 여름 잡초들을 맨손으로 잡아 뽑아낸다. 글을 쓰다 말고 마당에 나는 풀들을 뽑아 돌 위에 널어놓고 상상을 해 본다. 내 마음을 씻기는 이마의 땀방울이 풀맹이들을 흔든다. 나의 삶이 잡초와 같이 뿌리 뽑힌 삶이구나. 그대 구도자는 항상 푸른 뿌리, 물가에 심겨진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기억나는 글이 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방치된 이화정에 입주하였다. 마당에는 풀들이 수북하게 우거져 있었

현대에 들어서도 내전과 국가간의 분쟁은 많은 난민을 만들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약 67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다.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 780만여 실형민들을 만들었다. 아프리카나스탄도 정치 종교적 이유로 260만 여명이 주변국으로 피난을 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 예멘, 콩고 등의 내전도 수백만을 실형하게 했다. 경제적 상승의 꿈은 수많은 국제 이주민들을 발생하게 했다. 이들은 경제, 고용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이주민이 되었다. 한국에도 30~40만명의 외국 이주노동자들이 농업, 건설, 제조업 등에 종사하면서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있다.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이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에서 떠나라." 그는 하염없는 나그네 길을 걸었다. 아담과 그 아들들은 애굽에서 고향을 그리다가 출애굽으로 마침내 귀환할 수 있었다. 요셉도 버림 받고 외국생활을 하며 수모를 겪어야 했다. 모두가 종찬노숙하는 노숙자로 지냈다. 신약성경의 예수께서도 머리 돌 곳이었다. 처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로 유리했다. 히브리서는 이들이 외딴곳에서, 이 산 저 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의 갈라진

구도자의 푸른 뿌리 -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밀

다. 비서진들이 미리 정비하지 못한 미안함에 찔끔했다. 이승만은 이를 말리면서 "내가 다 뽑겠다"고 틈틈이 풀을 뽑아내고 한다. 그 글을 떠올리니 나도 마당의 풀 뽑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 '뿌리 뽑힌 자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구교에 의해 개신교인들을 비호하는 '위그노'에서 유래한다. 이 후에도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로 불리며 비호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고 또 재산도 몰수당하며 흩어졌다. '뿌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이라며 '뿌리 뽑힌 자들'이라는 차별을 받았다. 18세기에는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이 이 용어를 썼다. 당시 외국의 농민층과 자영업자들은 기독교 권력들의 압박으로 등을 떠밀려 공동체와 터전을 떠나 도시와 시장경제에 내몰렸다. 이들을 비판하여 '전통적 가치와 결속을 잃은 채 떠도는 사람들'로 불렀다. 오늘 현대인들도 여러 이유로 고향 고향을 떠나서 뿌리를 잃고 살아간다. 다수는 조상 때부터 익숙했던 문화 대신에 자본과 새로운 문화를 찾아서 살아간다. 농경문화의 전승은 고된 노동이 수반되고 후진된 문화라 여기며 도시로 몰려들어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미 떠난 고향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잃어버린 자연, 이웃과 더불어 품앗이 등으로 어울려 살던 삶은 개인화 파편화 되고 말았다. 우울증을 앓고 타락해 오염된 호흡을 하는 현실이다. 도시의 작은 마을들은 대형 건물과 아파트 숲에 밀려 사라지고 없다.

틈새들에서 해매는 삶(히11:38)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자갈이 깔린 마당에서 맨손으로 풀을 뽑아 던졌다. 뿌리가 알아 쉬이 뽑힌 풀들은 내리쬐는 햇빛에 금방 사들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거나 여호와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거친 땅의 가시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볼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뿌리를 물가에 내렸기에 더위도 두렵지 않고, 잎은 푸르고 무성하다. 가뭄이 와도 열매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뿔뿔한 위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더위에 마르고 만다. 반면에 좋은 토양에서 자란 씨앗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결실에 이를 수 있다"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살아간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 뿌리 뽑힌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라지거나 마르지 않았다. 이 땅의 고향을 마음에 두지 않고,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비라며 믿음을 잃지 않는 영웅적인 삶이었다. 위그노들은 지금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라' 하면서 뿌리 뽑힌 삶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의 뿌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내린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심고,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의 뿌리 뽑히지 않는 푸른 삶을 견지하는 구도자요, 비밀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수를 마시는 여름을 살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문화원 이사장

점점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은 몇 살까지가 될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도 첨단 과학은 불로장생 현대 불로초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시대 27명의 임금님 평균 수명은 46.1세 고려시대 34명의 임금 평균 수명도 42.3세에 불과했다. 중국 최초의 황제로 백방으로 장수초를 구했던 장수의 아이

큰 진시황제 수명도 49세까지가 그의 생명이었었다. 역대 중국 황제들 평균수명은 39세이고 로마 황제들도 37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 황제들보다도 두배 이상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구상 공식적인 최장수인

200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한다. 생물학자들은 동물은 생존가능년수를 그 성장기간의 6배까지로 치고 있다. 사람은 20살까지가 성장기라면 그 예인 120살 까지 살수 있다는 것이다. 21C 에디슨이라 불리는 구글의 엔지니어 Ray Kurzweil은 2030년에 500세 시대가 오고 2045년에는 신

미국 알코어 재단 등 4곳에서는 인간장수보존연구소가 있어 350여구의 인간이 냉동보관 되어있다. 영하 196°C 로 냉동하여 액체 질소 탱크 속에 보관되어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관신청자가 2000여명에 이르르고 있다. 50~100년 안에 다시 해동 소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100년 전 공상과학이 오늘에는 현실이고 과학이 되었다. 120세, 150세 시대가 오고 시니어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 과연 과학이 어디까지이며 장수 생명공학은 어디까지일까? 무한장수시대? 기대보다는 열려와 걱정이 따르기도 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 아니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또 하나의 바벨탑 · 무한 장수시대

은 122세까지 살았던 불란서 진칼 뱅이다. 비공식 기록에는 중국의 이청운(1677~1933)이라는 최고 장수인이 있기도 하다. 그는 23명의 부인과 사별하면서 200여명의 자녀를 두고 256세까지 살았다. 20C 전반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는 꿈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꿈이 21C 초반에 현실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모헌드러드 시대의 도래에 호들갑 떨더니 이제는 150세 시대,

체불멸의 무한 장수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언했다. 그는 유명한 과학자요 미래학자 이기에 황당하기까지 하다. 나노와 로봇공학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IT 기술 앞에서 질병은 오류이기에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대 앞으로는 의학의 주도권이 제약회사가 아니라 IT 제국들이고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남편의 부권

주님, 아이들을 언제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를 남편에게 알려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엡6:4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세우는 규율이나 그들의 양육에 있어 우리 부부가 한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이나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자녀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단호함, 무정함, 차가움, 확대하는 마음보다는 친절함,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게 하소서.

순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지식의 영화니라.

잠17:6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리라 하셨느니라.
고후8:18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20:7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1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부권

주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축복받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남편이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부요하게 하옵소서. 그가 주의 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자녀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도 안에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그가 완고하거나 잔인하거나 냉담하거나 욕설을 일삼거나 대화를 단절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나약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신 친절하고 자애롭고 온화하며 배려할 줄 알고 건강하고 일관되며 의지할 수 있고 진지하게 대화하며 이해심과 인내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자 하는 소원을 풍성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지식을 받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잠 23:24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gccc.or.kr



합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시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 총회신학 팡주캠퍼스
- 2. 원서접수: 수시 접수 (062-266-0153)
-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gccc.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말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별
-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가총가임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